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 된 이후 101주년을 맞습니다. 어린이는 '어리신 이'의 줄임말로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양육하는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대 표 기 도 : 이재우 어린이
모범 어린이 : 이재우 어린이, 한은총 어린이 (시상)
어린이 선물 : 모든 어린이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5.11)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 노방전도
매주 목요일 오후 4~6시까지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팝콘전도, 슬러시전도, 찬양전도, 가정방문 전도)

6. 구역예배
2025년 5월 8일(목) 교회 본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후에는 교회 어르신 가정을 방문합니다.
다음 모임 : 김혜숙 권사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

8.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손발목 인대수술 예정),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근무력증) 정현숙 권사(근무력증), 김강준 어린이(수술 후 회복과 치유) 윤라겸 집사(사업, 평안), 김주형(가정)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청재(믿음과 긍휼), 이광근(홈스쿨)

9. 2025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4.4 ~ 5.5)*
5/08(목)-임명자 집사(-4.11) 5/20(화)-이소은 어린이 5/27(화)-문재효 형제
5/26(월)-이다남 집사(-4.30) 5/28(수)-박수진 학생 5/28(수)-이예나 어린이
5/00(?)-최범준 어린이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5/04	이재우 어린이
5/11	임명자 집사
5/18	임명숙 집사
5/25	김혜숙 권사
6/01	정현숙 권사
6/08	박제연 집사
6/15	이광근 안수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5/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5/04	어린이주일
05/06	산상기도회 (강남금식기도원)
05/11	어버이주일
05/15	교회어르신 가정 위로 심방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정기총회
05/18	스승의 주일
05/25	부부주일
	성결교회주일
05/29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날
06/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농어촌 선교주일
06/03	산상기도회 (강남금식기도원)

주일 차량 운행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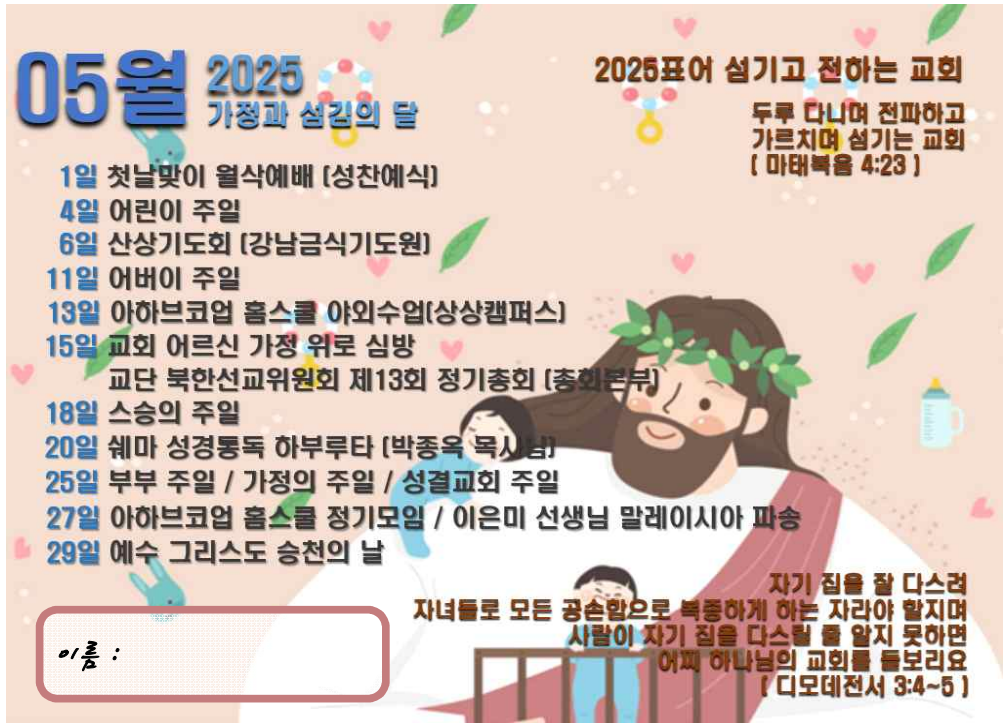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8권 18호 | 2025년 5월 4일
창립 2017.11.25 |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 어린이주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어린이 주일)　　인도:집례자

※ 묵　　도 ········· 이사야 11:6~9 ········· 인 도 자

※ 찬 송 가 ············ 찬 565장 ············ 다 같 이

(예수께로 가면)

※ 사도신경 ·································· 다 같 이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성시교독 ·········· No.96 어린이주일 ········ 인도자/회중

찬 송 가 ············ 찬 570장 ············ 다 같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대표기도 ·································· 이재우 어린이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8:15~17 (신 127) ····· 이재우 어린이

광　　고 ·································· 인 도 자

말씀인도 ········ 어린이가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 ········ 담임목사

봉헌찬송 ············ 찬 563장 ············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은총 어린이)

※ 축　　도 ··································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향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김혜숙 임명순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오동영·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감사헌금 : 김옥화 이광근·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임명순 한승훈(생일)
심방감사 : 정현숙(이사)
부활감사 : 이가을 박태성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건축헌금 : 조남건·박윤미
후원헌금 : 경기서지방회 소망세광교회 안양성결교회 조형자(수원순복음) 희망찬교회
성미헌금 : 조형자(수원순복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 맡 은 이
성경봉독 **사사기 2:6~10** (구 363)
말씀제목 **거북한 다른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시편 127:1~5** (신 898)
말씀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 부모님 중
성경봉독 **열왕기상 22:15~28** (구 554)
대표기도 ························ 자녀들 중
말씀제목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이사야 11:1~9** (구 981)
말씀제목 **어린 생명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

새벽 기도회

새벽5:30	매일성경 (월~금)	
4일(일)	눅 16:19~30	주 품에 안긴 나사로의 비밀
5일(월)	눅 18:31~34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심
6일(화)	눅 18:35~48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7일(수)	눅 19:1~10	뽕나무에 열린 의인의 열매
8일(목)	눅 19:11~27	주님을 향한 오해 버리기
9일(금)	눅 19:28~26	돌들이 외치리라
10일(토)	눅 19:27~40	부활에 대한 논쟁과 의미
11일(일)	눅 19:41~47	믿음으로 치장한 외식 주의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이재우·재희·재아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베드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컴미션 파송
소리 단이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교단총회 향존부서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기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소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⑦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두 독수리, 레바논 백향목, 포도나무)를 통해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려진 엄중한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겔 17:16)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　　　　　　　)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　　　　　)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　　　　　　)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람이 한번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반드시 살려내시리라고 소망의 말씀하셨나요?** (겔 18:21~24)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　　　　　　　　　　　　) 내 모든 (　　　)를 지키고 (　　　)와 (　　　)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　　　　)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　　　　　　　　)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　　　　)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　　　　)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　　　)과 그 지은 (　　　)로 죽으리라

⑨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 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에서 벗어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겔 18:30~3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　　　)하고 (　　　　　　　)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　　)을 버리고 (　　)과 (　　) 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　　　　　　) 살지니라

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했는데, 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의 최후와 다윗 왕가의 멸망을 풍자한 것으로,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바로느고에게 포로된 사실을 풍자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겔 19:4)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　　　　　　　)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5-18주 / 에스겔 15 ~ 19장

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최후가 어떤 존재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나요?(겔 15: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 )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②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셔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겔 15:7~8)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③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설정한 후, 이스라엘의 끊임 없는 우상숭배 행위를 무엇에 비유하시고 심판을 명하셨나요? (겔 16:32)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 )로다

④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가해질 심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겔 16:37)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 )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겔 11:18~20)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 )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 )을 주고 그 속에 ( )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 )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임을 선언하셨나요? (겔 16:62~63)

내가 네게 내 ( )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 )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의 향기 : 가장 가치있는 소중한 선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 9장 9절)

어린이주일을 맞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 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입어보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커다란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보석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내가 산 옷에 있으니 내 것이 아닐까?', '아니야 보석이 엄청 비싸 보이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쯤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

그러나 혼자서 답을 내리기엔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고, 마을의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닙니다.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돌려주려고 갈 때에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꼭 데리고 가십시오. 보석보다 더 귀중한 것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석을 돌려주는 것이 당장은 아쉬울지는 몰라도, 보석보다 몇 배나 더 귀중한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보다 바른 신앙과 바른 성품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필요한 선물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많은 양의 교육보다 말씀과 삶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많은 용돈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420장	다 같 이
대표기도		정현숙 권사
성경봉독	왕하 1:1~12	윤 독
말씀인도	여호와를 무시하는 아하시야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기도	찬 586장	담임목사
주기도문		다 같 이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860	아합과 벤하닷의 허무한 대결	왕상 20:1~12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 싸우다	왕상 20:13~21
	한 선지자의 아합의 심판 선언	왕상 20:35~43
	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불순종	왕상 21:1~10
853	아람과의 전쟁과 아합의 죽음	왕상 22:1~40
	여호사밧 왕의 통치 이야기	왕상 22:41~50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등극	왕상 22:51~53
850	아하시야의 배반의 조짐	왕하 1:1~12

■ 들어가는 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위에 오릅니다(BC.853). 아하시야 왕도 그의 아버지 아합의 악한 길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 결과 외교적으로는 모압의 반란 분위기가 조성되고, 내부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왕 자신의 몸에 병이 들게 되고, 영적으로도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하시야 왕과의 부정적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병이든 아하시야 왕은 블레셋의 에그론 지역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죽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아하시야 왕은 2년 밖에는 통치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야 왕의 불의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할까요?

첫째, 오만이 불러오는 혼돈과 몰락의 경고를 인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1~2).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합 왕의 죽음 이후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반증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두로와 동맹을 맺었고, 이세벨과 결혼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나라의 쇠약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북이스라엘의 내외 정세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었습니다(1~2절).

첫째로 외부 정세로서 모압의 배반을 언급합니다(왕하1:1, 3:5). 모압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가지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배 아래 조공을 바쳐왔었습니다(왕하 3:4). 그러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약해지자 독립을 꾀했던 것입니다. 강성해가는 아람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한 모압의 소식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치,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쇠퇴해가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둘째로 내부 정세도 악화되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 궁 2층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건강 상태는 국가 안보에 큰 위험요소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질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상숭배로 병든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몰락합니다. 주를 떠나 오만에 빠지면 결국 버려집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회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회개는 지금이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3~8)

사마리아 궁 2층 난간에서 떨어져 큰 병을 얻게 된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생사여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문을 구합니다(2). 왕 옆에 있던 지도자들도 이 일을 만류하지 않습니다(왕상 3:11). 에그론은 블레셋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와 함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은 '똥파리의 주'라는 뜻이며, '파리, 질병, 전염병을 불러오는 신'이나 '질병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을 지켜보는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지폈다'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막 3:22). 이는 명백히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바알세붑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하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천사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3) 책망하시고, '그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4)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시야의 반응은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굴복하지 않고, 거듭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을 부르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신 32:46).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행동과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9~12)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하시야 왕는 이때가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 회유하려고 세 번이나 오부장과 오십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 강제로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불 심판을 내려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을 드러냅니다. '내려오라'(9), '속히 내려오라'(11)는 '왕의 말씀'에 불복하는 엘리야의 태도에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나타나지만(15),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6)에 반항하는 아하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도리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사르리라'고 반격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선한 용기는 아하야 왕과 그의 군대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의 보복과 군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보다 위세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진정한 용기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권능을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정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믿음의 성도들을 주목합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결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자 삶의 기반을 허무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간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